



# 2012 대한민국 청소년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작성·흥미(33.9%), 수입(27.4%), 안정성(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본인의 의사나 작성, 흥미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꿈이 되어버렸다.

## ◎ 김진욱(의정부부실대지기 대표)

**꿈과 희망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미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통계청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0세~24세)의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과 진부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가 38.6%, 직업이 22.9%이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이 8.8%였고,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충동을 겪으며,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의 모습이다. 도대체 무엇

이 청소년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향해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기약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꿈이 없거나 친편일률적인 꿈(좋은 대학 진학)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는 꿈과 희망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 버렸다.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작성·흥미(33.9%), 수입(27.4%), 안정성(20.3%) 순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본인의 의사나 작성, 흥미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꿈이 되어버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거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꿈과 미래마저 포기해 버린다. 그들에게 미래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언장되는 오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IMF 이후 청소년 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2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중·고등 학생의 가출 경험은 10.2%로 나타났으며, 가출 주 원인으로서는 부모님과의 갈등(51.3%), 놀고 싶어서(29.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5.5%) 순이었다.<sup>3)</sup> 가출 전 가족 형태를 보면 가출 청소년의 71.6%가 편부모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문제로 맘미암은 청소년 가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출 청소년 중 88.5%는 이미 초등학교 때 가출을 경험한다. 가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가출 중독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sup>4)</sup>

## 가르쳐 지기게 해라했는데

어찌다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고,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그들은 위축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직업 적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신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획일적이고 통일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좋은 대학, 돈 많이 벌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함으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sup>5)</sup>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기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에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예수의 지시 명령은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키게 하라'는 명령까지를 포함한다. 즉 교회의 교육

1. 통계청, '2012. 청소년 통계', 서울 : 대한민국 통계청, 2012, 1.  
 2. Ibid, 24.  
 3. Ibid, 36.  
 4. 국민일보, '공시 블로그, http://blog.naver.com/jmo\_1?direct=login&next=10011768316'  
 5. 5.인디라, '가신교 교회교육(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308.  
 6. 예수께서 나아가실 때와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김진욱, "교회교육에서의 다문화자녀를 프로그램 활용안임에 관한 연구" (서사학회)

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하에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sup>7</sup>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삶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은 그의 책 Sharing Faith(역서: 나눔의 교육과 목회)에서 기독교 교육의 실존적 목표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총체적 기독교 신앙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sup>8</sup>

###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게하라

다년간 교회학교 현장과 학교,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해오면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욕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그것을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며 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가정과 학교, 교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오늘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재능과 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이 있다.<sup>9</sup> 소명을 직업에만 국한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행위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다.<sup>10</sup>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기에, 인간의 존재와 행위의 소유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여되는 것이다.<sup>11</sup>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제사장, 왕, 선지자, 진도사, 선교사, 설교자, 사사, 행정가, 교사 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창지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행하는 문화적 활동이다.<sup>12</sup>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8. 토마스 그룸, Sharing Faith, '나눔의 교육과 목회'를 위하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97), 21.  
9. 김재영,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90), 159.  
10. 기독교회사, 『복음교과서』 906.  
11. 오스기나스, 『소명, 문화와 의 (서울: IVP, 2000), 13.  
12. 김재영, 『직업과 소명』 116.

직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마 5:13; 마 13:38).<sup>13</sup>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직업을 잘 수행하도록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탈란트 비유를 통하여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충성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개발하여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sup>14</sup>

###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해야!

자신의 직성과 흥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이 배우는 성경 지식과 삶이 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성경공부 이외에 인생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진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회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한다.<sup>15</sup> 가족의 역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직성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재능과 직성을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하루하루일 것이다.

힘은 더욱 크다. 청소년의 재능과 직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그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복한 청소년 시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직성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재능과 직성을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하루하루일 것이다. 헛된 세상의 가르침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생각한다.

13. 토니 김필로, '영탄에 서양' 이승의 역 (서울: 홍인사, 1983), 128.  
14. 김신영, '청소년 진로 상담을 위한 성경적 부모 역할' (성서학박사논문, 박사대학교 기독교장로회원, 2010), 56-57.  
15. 김재영, '교회에서의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성서학박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학원, 2004), 33.



김진욱 사서장(신학대학원대학교) (031-826-0586/Fax031-835-0586/http://ddoraee.org)의정부신학대지기 대표 김진욱 목사(010-3350-5841) 지능출판기북부다중지능센터 센터장(031-877-0580/http://ddoraee.n.hq.com)